

본문: 요한복음 2 장 1-11 절

제목: 혼인잔치, 그리고 포도주

### 1. 요단강을 떠나 가나로

저는 단식이나 금식을 잘 못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유는 간단한 듯 했습니다. 어릴 적에 배고팠던 기억이 많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늘상 먹던 밥과 반찬이 자주 물리고 먹기 싫었던 것이었겠죠. 없어서 못 먹은게 아니라 편식때문에 못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잔치가 열리면 달랐습니다. 회갑 잔치, 결혼 잔치 등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면 풍성한 먹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상이 나도 시골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 집에 초상 났다더라 하면 슬퍼해야 하는데 당시 저와 친구들은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잔치, 하면 풍성하고 배부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잔치 중에 가장 성대한 잔치는 역시 결혼 잔치가 아닐까 합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에게 만족할만한 먹거리들과 마실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음식이 금방 동이 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식을 아내가 어린 시절부터 몸담았던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면 하객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임하러 온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할 것 없이 모두 음식을 먹다보니 금방 동이 나버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모자라서 급하게 150 인분을 추가로 더 준비하도록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비슷한 분위기였던 듯 합니다. 손님이 많이 온 것인지 준비를 적게 한 것인지 포도주가 동이 났던 것이죠. 이 포도주의 결핍이 예수님을 소환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신 배경을 먼저 살펴 봅니다.

1 절은 '사흘째 되는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일까요? 1 장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겠죠? 1 장 43 절에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에서 떠나려고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에 왜 가나 했던 거죠. 그리고 보니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시려고 하신 이유는 나dana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는 이유가 컸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결혼식에 늦지 마라고

신신당부했겠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막 시작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매우 가정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신 겁니다. 요단강으로부터 가나까지 약 90 마일이 떨어진 거리입니다. 걸어서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세레터에서 걸어서 사흘이 되는 날에 가나에 도착하셨고, 나다나엘을 만났으며 결혼식에 참석하신 겁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청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청됐다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첫 제자로 부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까지 7 명이 결혼식에 참여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처음 말할 때보다 예수님이 데리고 온 일행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원들이 결혼식에 오다 보니 포도주가 금방 떨어졌던 것이죠.

## 2.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 적잖은 소란이 있었을 겁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던 예수의 어머니는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에게 한 말은 너무 심플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였습니다. 그러자 이 본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디다."** 한마디로 "It's none of my business."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1 절에서 분명히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머니 Mater'라는 표현 대신 '여자여 Gynai'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나이라는 이 말은 귀부인으로서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건조한 호칭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이 표현을 쓰셨을지가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이구요.

다른 하나는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때가 무슨 때를 의미하는 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의 이런 반응과 상관 없이 일꾼을 불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꾼으로 쓰인 단어는 '디아코노스(Diakonos, διάκονος)'로서 사도행전에 쓰인 '집사(Deacon)'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종이였다면 '둘로스(Doulos)'라는 말이 쓰였을텐데 결혼식 도우미들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준비시킨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예식에 사용되는 돌항아리였습니다. 몇 개가 준비되는지 아세요? 여섯 개입니다. 정결 예법이란 것이

바리새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규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차별과 분리의 정책들을 폄하하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결하고 거룩해지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평균치를 높이기 위해 정결 예법을 아주 세밀하게 행하도록 했죠. 다른 한 편으로는 거룩하지 못한 이들을 공동체에서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이 집에서 손을 씻고 더러운 몸을 정결케 하는 돌항아리가 여섯 개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 포도주를 맛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 했다는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 3. 자기 육체로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여자여'라는 마리아를 향한 호칭과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과 본문의 예수님의 표적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 깊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체의 큰 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약성경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게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구약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요한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마리아를 향한 '여자여'라는 호칭은 본문과 함께 19 장 26 절에서 반복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2 장과 19 장을 샌드위치 구조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문학기법으로 아치(arch)구조 또는 수미쌍관 구조(Inclusio)라고도 합니다. 19 장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사용하셨던 '여자여'라는 호칭을 미리 2 장에서 앞당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기 위해 예언적으로 이곳에 미리 삽입시킨 문학적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학에서는 Prolepsis (예언적 삽입수사)라고 부릅니다. 무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하실 말을 미리 내다보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킨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라는 말도 "아직 내가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흘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11 절에서 랩업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표징(Miracle-KJV, Miraculous Sign-NIV)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 '표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sign)은 사인이라는 말이죠. 물리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의 이면에 그 사건의 실제나 실체가 숨어 있을 때 쓰는 말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의 표징을 행하신 것은 그 표징 자체보다 그 표징을 통해 나타내려 하신 어떤 의미가 숨겨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2 장부터 12 장까지 일곱 개의 예수님의 표징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 일곱 개의 표징을 통해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곱 가지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1 장 14 절에서 로고스(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통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성전 안의 지성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사장, 왕, 예언자 등 몇 사람들만 보았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영광은 객관적인 영광인데 예언자를 통해 나타난 영광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시기 위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등 끊임 없이 이어지는 예언자들의 등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싸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 장에서 그가 본 영광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며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그의 입술에 손을 대어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자 그는 살아난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비출 때 죄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그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립니다. 성전을 떠난 영광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도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그 영광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예수의 몸을 통해 성전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임마누엘)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살아계신 성전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 죄를 사하고, 병을 치유하고 회복케하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 4. 혼인잔치가 위기에 처하다. (성전시스템이 잔치를 멈추게 하다.)

포인트는 예수님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연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포도주'라는 말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새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 장 34 절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물, 포도주, 성령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합니다. 이 셋이 같은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2 장 20 절에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자신의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요한 1 서 5 장 5-8 절에서 이 해석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7-8 절)."** 포도주는 예수의 피이자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도 구약성경과 잇대어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잔치'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잔치의 특징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잔치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그에 따라 배부름이 있습니다. 더불어 잔치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인 거구요. 가장 유명한 시인 시편 23 편 5 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십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25 장 6 절, 포도주로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래된 포도주와 제일 좋은 살코기에 밀줄 짝 그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벌써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잔치를 위해 희생시키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잔치에 참여시키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선택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잔치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종교로 대표되는 그들의 종교는 정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 종교였습니다. 그들의 그런 정결

강박관념은 잔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돌항아리 여섯 개는 바로 유대인들의 성전체제의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버리고 기능을 상실한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들이 잔치에 아무 도움을 못 주고 있음은 유대교의 성전체제가 진정한 잔치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논지는 이 혼인 잔치 표징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을 헐고 삼일 만에 짓겠다는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가 멈춰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묵혀 두었던 포도주를 꺼내드셨습니다. 흥겨운 잔치를 위해 하나님이 꺼내 드신 포도주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서 성동일은 LG Twins 라는 야구 팀 코치로 연기합니다. 1994년 트윈스가 우승을 하자 그는 엘지 우승주라면서 술을 담급니다. 다음 우승에 이 술을 먹겠다고 하며 담근 술인데 그 이후 39년간 엘지는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한국시리즈에서 엘지가 우승합니다. 39년만의 일입니다. 그 드라마가 사실이었다면, 39년이 지나 성동일은 그 우승주를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 1500년 동안 묵혀 놓았던 오래 된 포도주를 이제 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풀지 못한 구원의 과업을 예수님이 수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 5. 신앙 생활은 혼인잔치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과 제자들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지금 그 큰 일을 혼인잔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잔치입니다. 잔치하면 배부름과 풍성함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만족을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혼인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연합과 기쁨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그분의 살을 나누는 이 풍성한 잔치는 모든 이들을 부요하게 하며 풍성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술이신 성령님은 엄청난 기쁨과 흥분을 교회 공동체에

선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 장 13 절은 성령충만한 제자들이 이런 평가를 들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 생활의 흥을 돋구는 핵심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충만은 우리 신앙을 잔치로 만들어주는 필요조건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에게서 술에 취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에 취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술에 취하시면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때리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 주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너그러워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이런 너그러운 행동들이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눕니다. 제 정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이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이죠.

저는 교회생활과 예배 생활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기본이며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포함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이거 이거 지켜야되, 지키지 못하면 넌 아웃이야.’라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달라 붙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11 장의 언어를 빌리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다보면 순종할 힘이 자연스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 생활을 무겁고 부담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직 진짜 술에 취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누리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잔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이 잔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기본적으로 애찬(Love Feast)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맛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좋은 생각들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이 부요하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잔치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돈 없는 사람도 오고, 목 마른 사람도 와서 모두가 함께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야 합니다. 신앙 생활은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마시고 먹으면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로마 군병에게 잡히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먹을 것과 포도주를 나누며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잔치는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잔치는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감사하며 즐기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깨닫거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시는 그곳에 잔치가 벌어지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잔치, 나눔의 잔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인생의 참 맛을 느끼고 풍성함에 동참하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나눔>

1. 돌항아리,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돌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전중심의 유대교가 제 기능을 못하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성전의 기능을 하시고 구원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신다.)
2. 신앙의 본질이 혼인잔치라면 내 생활과 삶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필요할까요?